

8 월

청년기도문

— 통일 —

NCCK
청년위원회

뭇 생명을 보듬으시며 풍요로움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당신께 가도함은
전쟁과 폭력의 잔운으로 가득한 이 땅의 현실을 직시하기 위함이요
정직한 절망을 바탕삼아 평화의 세상을 꿈꾸기 위함입니다.

주님, 여전히 이 땅에는 채 아물지 않은 분열의 상흔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였던 민족이 둘로 나뉘져 수십 년을 비난하고 미워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념은 이 땅에 물리적인 경계선과 더불어
좁힐 수 없는 내면의 간극을 만들어 왔습니다.
십여 년 만에 남북이 대화국면에 들어섰지만,
이 땅의 갈등과 분열을 자양분 삼아
힘과 권력을 잡아온 이들은 여전히 건재하여
평화를 향한 발걸음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이 땅을 둘러싼 주변 강대국들의 긴장관계는 종식되지 않고,
고스란히 이 땅의 민중이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 분단의 비극이 남긴 이 땅의 상처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향한 비난과 미움을 거두고
그 자리에 사랑과 공존의 씨앗을 심게 하시옵소서.
이념이 만든 경계와 간극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소되게 하시며,
평화를 발목 잡는 이들의 욕망은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게 하시옵소서.
더 이상 이 땅이 전쟁과 폭력으로 물들지 않게 하시며,
남과 북, 모든 민중이 서로 베풀목이 되어 공존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가 시절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분단의 상흔과 아픔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는 넓은 지평의 신앙을 추구하게 하시옵소서.
통일, 이 땅의 하나 됨을 위해,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하시며,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결단할 힘과 실천할 용기를 얻게 하시옵소서.

주님, 청년들이 분단의 문제를 자기문제로 받아드리게 하시옵소서.
분단이 초래하는 비극과 모순이
청년세대의 삶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을 추구하는 일에 동참하게 하시옵소서.
통일을 향한 열망과 관심이 엷어지는 시절이지만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고 분단의 현실을 함께 마음 아파하며
평화의 공존의 소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뭇 생명을 보듬으시며 풍요로움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이 땅의 현실을 보고만 있지 않으실 거라 확신합니다.
분단으로 슬피 우는 이 땅을 긍휼이 여겨 주시옵소서.
분단의 현실을 담보로 이 땅을 좀 먹는 위정자들을 심판해주시옵소서.
버겁고 먼 길, 한반도의 평화를 일구는 길을
용기 내어 걷고 있는 이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